

# 원희룡 장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 - 심야 공급력 확대를 위해 택시·플랫폼업계와 다양한 실행방안 논의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수)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가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가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원 장관은 “국민들의 편하고 빠른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 및 플랫폼업계가 ‘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하였다.

  - 앞으로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및 업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지자체 간담회, 소비자·전문가 토론회(8월초)

2022. 7. 27.

국토교통부 대변인